

지역 소식통

김제시, 1월 1일 기준
개발공시지가 결정·공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발공시지가가 29만9,668필지에 대해 지난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개발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75% 상승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개발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가 형성요인 등 시민의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감정평가사상담계'를 운영할 계획이며, 신청은 방문 또는 유선(☎540-3749, 3788, 3901)으로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법인 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6월 중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 성황리 열려

김제시(시장 정성주)치매안심센터는 지난 30일 김제시 시민운동장 일원에서 2025년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걷기'를 시민들과 함께 실천하며,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극복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따뜻한 봄 햇살 속에 열린 행사에는 치매환자와 가족, 치매파티너, 일반 시민 등 약 400여 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건강체험마당'과 병행해 운영되며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했다. 실내체육관에서는 혈압·혈당 체크, 치매예방 퀴즈, 스트레칭 등 다양한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심사위원회서 총 4가족 선정

완주군이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총 4가족을 선발했다.

완주군은 다문화가족들의 고향 방문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 상황, 고향 방문의 필요성, 사업 참여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올해 사업에는 총 27가족이 신청했으며, 최종적으로 4가족을 선발했다. 선정된 가족은 사업 지원을 받아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고향 방문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선정된 대상자 가족에게는 왕복항공료 및 여행자보험료 등 최대 4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한편, 이 사업은 장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모국 방문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간의 소통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 만경강 통합하천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봉동 씨름공원(사진 왼쪽)과 천변레포츠공원 조감도.

완주 '만경강의 기적' 본궤도

군, 통합하천사업 본격 추진 따라... 봉동 씨름공원 발주·천변레포츠공원 순차 추진

완주군이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올라섰다.

지난 30일 완주군은 우선순위 사업지로 봉동 씨름공원과 천변레포츠공원을 선정하고 지난해부터 실시계획 및 전복지방환경영향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봉동 씨름공원 조성사업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봉동 씨름공원은 종합계획 단계부터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하고 실시계획 단계에서도 봉동을 체육회와 당산계 운영 관계자 등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의 내실을 다져왔다.

이에 따라 군은 읍민의 날 행사에 활용 가능한 씨름장과 다목적 광장, 관람스탠드를 조성하고, 아이들이 자란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친환경 놀이터까지 함께 마련해 주민 편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봉동 천변레포츠공원 사업을 포함한 권역별 후속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사업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환경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만경강 통합하천 자문협의체'를 운영하며 사업 전반에 걸친 긴밀한 협력과 전문적인 자문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만경강 일대를 문화·관광·경제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권역별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수변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한다는 방침이다.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는 만경강 개발을 넘어 문화·관광·경제 등 완주군 전체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대규모 종합계획이다.

군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이 프로

젝트의 중심 사업인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시계획용역 등 착실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사업 대상 지역은 국가하천인 만경강 완주 구간 내 삼례, 봉동, 용진, 고산 등 총 4개 권역으로, 군은 오는 2032년까지 총사업비 291억원을 투입해 19개 사업과 42개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봉동 씨름공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은 완주군민과 행정의 긴밀한 소통으로 이뤄질 뜻깊은 결실"이라며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가 완주군 전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 고산권 6개면 대상 농업기계 지원 방안 모색

김재천 완주군의회 부의장, 간담회 열고 현장 목소리 청취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은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산권 6개면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운주면과 경천면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농촌 고령화와 인력수급난에 대응하고, 농작업

기계화를 통해 관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며, 농업인의 생계 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천 부의장을 비롯한 운주농협 정성권 조합장,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및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농기계 수요와 활용 실태,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산간지역의 지형적 특성상 협소한 경작지에 적합한 소형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게차 임대 수요와 더불어 부피가 큰 농기계의 이동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공동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농기계 보급 확대 △임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정비 확보 문제 △정비 및 유지·관리 지원의 체계화 △지형 특성을 고려한 소형·특수기계 보급 필요성 △농기계 운영 관련 교육과 전문 인력 지원 체계 구축 등 다양한 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김재천 부의장은 "고산권 농업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깊이 공감한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군정과 정책이 적극 반영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주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산권 6개면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김호은 전북환경청장, 완주 재해복구 현장 방문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이 지난 30일 완주군을 방문해 성북 등 주요 재해복구사업장을 찾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여름철 우기에 대비한 비상 대응체계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완주군은 국비와 도비, 군비 등 총 1,128억 원을 투입해 총 217건의 재해복구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132건은 이미 완료돼 전체 복구율은 61%에 달한다.

군은 지속적으로 전북지방환경청과 협력해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재해복구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이날 복구사업이 진행 중인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하부 세굴, 구조물 손상 및 붕괴 위험 등 우기철 피해 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점들을 집



중적으로 점검했다.

김호은 청장은 "완주군이 추진 중인 재해복구사업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사업"이라며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서둘러 여름철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병춘 혁신개발과장은 "여름철 재난 발생에 대비해 비상 대응체계 재정비, 응급복구 자체 확보,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 다각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한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 '1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최근 김제전통시장에서 '1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매월 10일을 '1회용품 없는 날'로 지정해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커피 이용 시 텀블러 지참하기', '1회용품 봉투 대신 장바구니(에코백) 사용하기', '음식 포장 시 다회용기에 담아가기' 등 다양한 실천 운동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김제시에서 양성한 자원순환 시민전문가 20여명도 함께 참여해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다채로운 활동을 진행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해남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을 통해 시민의식 개선과 깨끗한 김제시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새만금 동서도로·수변도시
관할결정 따른 후속조치 나서

김희옥 김제 부시장, 새만금 현장행정 추진

김희옥 부시장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등 김제 관할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새만금 현장행정을 실시했다.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지난 30일 김 부시장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새만금전략과장, 자원순환과장, 도시과장 등 주요 부서장들과 새만금 현장행정을 추진했다.

이번 현장행정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동서도로(2월 21일) 및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4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의 농생명용지 및 방수제(4월 21일) 김제 관할 결정에 따라 체계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해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새만금 동서도로를 시작으로 △새만금 누리생태공원, △새만금 2호 방조제, △자연쉼터, △바람쉼터, △소라쉼터, △너울쉼터,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등을 방문해 관광안내도 설치, 버스노선 및 신규 승강장 설치,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가로수 및 공원관리, 쓰레기 수거방안 등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점검했다.

김 부시장은 "새만금 사업은 김제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성장동력"이라며 "김제 관할에 따른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의 첫 도시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인구 3.9만명, 6.6km² 규모의 미래 첨단 복합도시로서, 새만금에 인구·산업을 유입시키고 민간 산업 참여와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조성 중에 있으며, 2025년 하반기 첫 분양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 주민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희옥 김제 부시장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등 김제 관할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새만금 현장행정을 실시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사회적기업과 상생협력 앞장

김제시, 2025 사회적경제기업 우선 구매 페스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페스타'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경제기업 홍보부스를 운영해 공공부문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구매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경진원) 최인남 공공경제팀장을 초빙해 강의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의 중요성과 실무적 역량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행사장 내에는 사회적기업 10



여 개 업체가 직접 참여해 친환경 생활용품, 지역 특산품,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제품을 전시·홍보했다. 실무자가 직접 제품을 보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홍보부스가 함께 운영되어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현장 구매 및 상담을 통해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와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에서 나의 20시간 여행' 참가자 모집

오늘부터 16일까지... 행사는 내달 13-14일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미혼 청년 만남 행사 '김제에서 나의 20시간 여행' 참가자를 5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모집한다.

김제에서 나의 20시간 여행은 바쁜 일상 속에서 미혼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애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결혼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번 행사는 6월 13일 오후 7시부터 익일 오후 3시까지 총 20시간 동안 김제시 관내에서 진행되며 체험 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 커플 미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친밀감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된다.

모집 인원은 남녀 각 15명씩 총 30명이며, 참가 자격은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김제시 소재 또는 연고가 있는 직장(자영업, 프리랜서 포함)에 재직 중인 25~39세 사이의 미혼 청년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시 홈페이지(www.gimje.go.kr)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이메일(semin0761@korea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